

## 원자력의 안전성증진에 총력

###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지난 한해동안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술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위상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원자력법에 주어진 안전심사, 검사, 기술기준개발과 면허시험관리 등의 법정위탁업무와 안전기술원법에 주어진 기술원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출범 두돌을 맞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성증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기관의 독립이후 그동안 여러가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안전기술원의 위상 및 그 기능과 업무발전방향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토대로 충실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단위계획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관의 운영발전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개선할 수 있는 Brain-storming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과거처와 규제업무협의회의를 춘, 추계로 구분개최함으로써 정부와 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간의 규제업무효율화를 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

이다.

작년 9월과 12월에 시작한 월성 2호기와 울진 3,4호기의 안전심사업무는 각각 금년말과 내년 5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월성 3,4호기의 부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PSAR 심사도 금년중에 시작될 전망이다.

월성 2호기의 건설허가심사에는 1호기와의 설계차이항목, 규제요건변동사항 및 월성 1호기 등의 운전경험에서 제기된 안전성관련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미 구축된 캐나다규제기관 AECB와의 상호협력체계를 적극활용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심층 제고토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사업체가 설계 및 건설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울진 3,4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확보 여부가 주요 관건이므로 이를 위하여 중대사고대처능력, 참조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경험반영여부 및 특히 산업체의 QA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PSAR 심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영광 3,4호기 건설허가조건사항과 가동중 원자력발전소의 변경허가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다목적연구용 원자로(KMRR)에 대하여도 그 안전성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책임 검사제도를 확립하여 정기검사, 일상검사 등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사고, 고장자료의 분석 평가 및 운영, 보수상태의 분석 등을 검사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입체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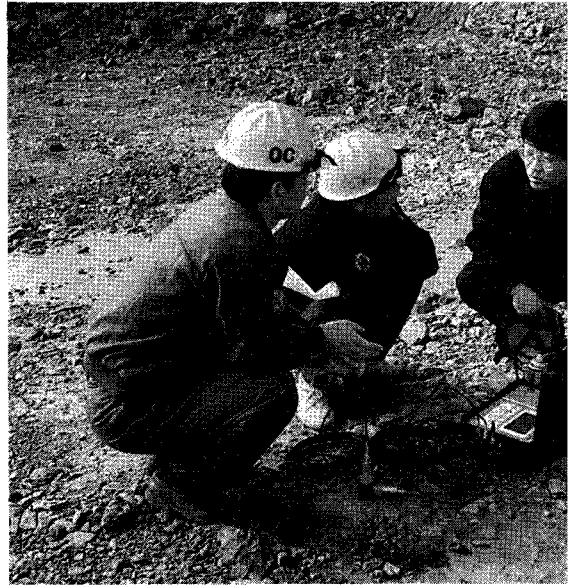
또한 보다 합리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검사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검사제도를 정비, 보강할 것이며 특히 일상검사원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상검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전국도의 환경방사능감시업무는 방사능분석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분석센터와의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국제환경방사능오염감시망(GERMON)에 가입, 활용하는 등 방사능측정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을 피하며 원자력시설주변의 환경감시 및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원자력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도 철저히 평가할 것이다.

기본연구와 특정연구를 포함한 기술개발분야에는 올해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안전규제기술개발중장기계획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올 1월 말경에는 확정, 발표될 것이다.

또한 우리 안전기술원은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선진국과는 기존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여 안전규제기술이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련, 중국 등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공산권국가와의 기술협력도 기술개발현황 및 경제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협력을 추진하되 협력과제발굴을 도모함으로써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월경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5월 말경에는 CANDU 안전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전반기(3월말)와 후반기에는 원자력안전성 Symposium을 개최하여 안전규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안전



규제업무 및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원자력안전문화를 확산, 보급하는데 힘쓸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정부와 공동으로 원자력안전백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술원연보와 원자력안전심의회연보를 발간하여 안전규제관련업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는 달리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안전기술원은 국민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원자력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재확인하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규제업무와 실적 및 규제측면의 원전상황정보 등을 항상 국민에게 적극공개함은 물론 규제과정에도 최대한의 국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항상 유지해 나갈 것이다. 올 한해동안 이루게 될 업무성과와 우리가 간직해야할 근무자세는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는 비장한 각오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자세는 세상 밖에 안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